

1 개요

금덕리당 종신당 유수암당 본풀이는 애월읍 유수암리 유수암당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김장수는 산신대왕, 산신백관의 도움으로 날랜 말을 얻어 외적이 쳐들어 왔을 때 그 말을 타고 장수로 나서서 소탕하여 공을 세운 뒤에 산신대왕, 산신백관을 위하는 당을 설립하였다.

2 내용

유수암당은 옛날 유수암리가 설촌할 때 김장수가 설립한 당이다. 김장수 시절 고내오름에 굴레 벗은 말이 하나 있었다. 이 말이 남의 곡식을 다 먹어버려도 붙잡지 못하였다. 하루는 김장수 꿈에 산신대왕, 산신백관이 나타나 말을 잡을 방도를 알려주었다. 김장수가 말을 붙잡아 올라탔더니 순식간에 제주 삼읍을 돌아오곤 하였다. 어느 해 중국에서 쳐들어와 마을 재물을 약탈하고 여인들을 겁탈하였다. 김장수가 제주목사에게 가서 사령을 빌려다 성제오름에 매복시켜두고 적군을 유인하여 한꺼번에 붙잡았다. 그 공으로 건공장군 벼슬을 받았다. 그 후에 김장수가 산신대왕, 산신백관을 위하는 당을 설립하니 마을 사람들도 무심할 수 없어 함께 모시기 시작하였다.

3 특징

유수암리 고일부 심방이 전승한 자료이다. 일반적인 당신본풀이의 내용과는 매우 다른 면모를 지녔다. 김장수라는 사람이 산신대왕, 산신백관의 도움으로 명마를 얻고, 외적이 쳐들어오자 장수로 나서서 소탕하는 공을 세운 뒤에 자신을 도와준 신들을 모시는 당을 설립하였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김장수는 당신이 아니고 당을 설립한 사람일 뿐이다. 당신인 산신대왕, 산신백관은 단지 꿈을 통하여 김장수에게 명마를 얻도록 도왔을 따름이다. 당신의 내력을 잊히고 당을 설립한 사람의 내력을 중심으로 전승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4 핵심어

설촌, 김장수, 중국, 약탈, 겁탈, 제주목사, 성제오름, 건공장군, 산신대왕, 산신백관, 말, 유수암당

5 원전 서지사항

금덕리당 종신당 유수암당(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6 관련 자료